

『월드뷰』가 만난 이달의 인물

평창 올림픽 유치 실무 위원장 박선규 전 차관을 만나다

박선규 차관은 고려대학교를 졸업한 후 KBS에서 20년 3개월 동안 현장기자와 뉴스 앵커로 일했다. 기자로서는 중군취재로 강한 인상을 남겼으며, 앵커로서는 다양한 프로그램을 진행하였다. 9.11 테러 직후엔 미국 의회 보좌관으로 일하면서 미국에 대한 그의 통찰력이 담긴 『미국 왜 강한가』라는 책을 쓰기도 하였다. 이명박 정부에서 발탁되어 언론비서관, 청와대 대변인을 지냈으며, 그 이후 문체부 차관을 지내면서 2018 평창올림픽 유치 실무위원장을 맡아 유치 성공에 일익을 담당하여 황조근정훈장을 받았다. 기독교인으로서의 그는 하나님이 자신의 길을 이끈다는 사실과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들은 모든 것을 선으로 이룬다는 말씀을 늘 가슴 속에 품고 살아간다고 한다. 현재는 서울과학기술대학교 IT정책 대학원에서 교편을 잡고 있다.

인터뷰 배성민 교수 (강동대학교 교수)

배성민: 평창 올림픽이 이제 코 앞으로 다가 왔습니다. 느낌이 남 다르실 것 같아요.

박선규: 아, 결국 여기 까지 왔네요. (웃음). 느낌이 남 다르지요. 2011년 유치 당시를 돌이켜보면 당연히 설레고 흥분되고... 개막일이 기다려져야 하는데 솔직히 요즘은 그보다는 걱정이 앞섭니다. 과연 잘 치러낼 수 있을까? 세계 속에 내놓았던 약속을 지켜내면서 기대하는 효과를 낼 수 있을까....

배성민: 왜 그런 걱정을 하시지요?

박선규: 모두가 아시는 대로 올림픽은 평화의 축전이 돼야 하잖아요. 갈등과 분쟁의 요소마저 다 녹여내 화합을 도모하자는 것이지요. 당연히 지금은

대한민국 땅 구석구석까지 그런 국민적 기운이 감돌아야 하는데 그런 신명나는 기운이 없다는 말이지요. 한번 보세요. 지금은 그런 모습을 찾아볼 수 없어요. 대신 잡음과 파열음이 강해요. 어떤 분들은 ‘평창 올림픽이 아니라 평양 올림픽 되는 것 아니냐?’라고도 하고... 느닷없는 북한 변수가 생겨서 선수단은 선수단대로, 국민은 국민대로 갈라져 있으니 걱정이 되는 것이지요.

배성민: 그럼 차관님께서도 북한의 참가, 나아가 남북이 단일팀을 구성하는 것을 반대하는 입장이신가요?

박선규: ‘평화의 제전’이라는 올림픽 정신이 있



는데 누가 북한의 참가를 반대하겠습니까? 당연히 환영할 일이지요. 그리고 여건이 허락한다면 단일팀도 바람직한 일이지요. 하지만 지금은 과연 그럴 시기인가? 또 논의되는 방법은 바람직한 것인가? 하는 문제를 따져봐야 하는 상황이지요. 잘 아시는 대로 북한은 평창 올림픽을 ‘핵개발 위기’ 돌파를 위한 수단으로 활용하고 있어요. 자신들을 깡패로 인식하고 있는 국제사회에 파격적인 정치쇼를 벌이고 있는 것이지요. 문제는 그런 사실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는 우리 정부가 그들의 의도대로 움직여 주는데 주저함이 없다는 것입니다. 아무리 선의를 갖고 봐 주려 해도 도가 지나쳐요. 그냥 여러 참가국 가운데 하나로, 여러 선수단 가운데 하나로 맞으면 될 일입니다. 그것만으로도 의미가 작지 않은데 지나치게 호들갑을 떨고 있다는 거예요. 저들의 무리한 정치적 주장을 다 수용하면서 말이지요. 올림픽이 견지해야 할 핵심 가치가 ‘탈정치화’인데 그게 심각하게 훼손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것도 다른 나라가 아닌 바로 주최국인 우리에게 의해서 말이지요... 그것이 걱정스러운 것이지요.

배성민: 여자 아이스하키 등 단일팀의 대상으로 거론되는 선수들의 반발이 거센 것도 그런 이유라고 봐야겠군요.

박선규: 그들의 반발은 당연하죠. 입장을 거꾸로 생각해 보세요. 오직 올림픽이라는 목표 하나로 지금까지 몇 년씩 죽어라 고생해 온 선수들인데 그들의 마음이 어떻겠어요? 느닷없는 ‘단일팀’으로 출전기회조차 박탈당할 상황인데 그들이 어떻게 가만히 있을 수 있겠습니까? 평생 한번 밖에 오지 않는 기회인데요. 더더욱 기회가 있을 때마다 ‘기회는 균등하고 과정은 공정하며 결과는 정의로운 것이다’라고 외쳐온 문재인 대통령 정부가 할 일은 아니라는 것이죠. ‘위안부 합의에 심각한 문제가 있었다’고 목소리를 높였던 문재인 정부의 논리 가운데 핵심은 ‘당사자들의 의견을 묻지 않았다’는 것 이었습니다. 심각한 자가당착에 빠졌지요. 당사자인 선수들의 목소리를 무시하고 단일팀이라는 정치적 이벤트에 매달리는 지금의 모습이 과연 위안부 합의 때의 모습과 무엇이 다른 것일까요?

당사자인 선수들의 목소리를 무시하고
단일팀이라는 정치적 이벤트에
매달리는 지금의 모습이

과연 위안부 합의 때의 모습과
무엇이 다른 것일까요?

배성민: 말씀을 듣고 보니 답답합니다. 왜 이런 문제가 생긴 것일까요?

박선규: 욕심 때문이죠. 이번 기회에 남북관계 물꼬를 터보겠다는 욕심 말이지요. 남북관계 개선을 정권의 실적으로 만들어 보겠다는 그런 욕심이 앞선 결과라고 봐야겠지요. 그러다보니 다른 주변 요인들이 안 보이거나 무시되는 겁니다. 예를 들어 북한의 심각한 처지, 우리 선수들의 마음, 국민의 생각, 우방국들의 시선 등... 화가 나는 것은 그런 우리 정부의 내심을 정확하게 읽고 있는 북한이 우리를 갖고 놀고 있다는 거예요. 저들은 자신들이 이렇게 할 경우 우리가 어떻게 나오리라는 것을 너무 잘 알고 있어요. 그러니 북한의 갑질에 속절없이 질질 끌려다니는 상황이 된 것이지요. 화가 납니다. 왜 이렇게 어설피고 한심스런지요. 왜 이렇게 국민의 자존심을 상하게 하고 국가의 신뢰도를 떨어뜨리는지...

배성민: 그럼에도 불구하고 평창올림픽은 성공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박선규: 성공해야지요. 당연히 성공시켜야지요. 차관시절 3번째 도전을 이끌며 외국 기자들과 IOC 위원들에게 설파한 논리가 있습니다. '한국은 올

림픽에 빛진 나라다. 88년 서울 올림픽을 통해 독재와 부패 등 부정적 이미지를 벗고 국제사회의 일원으로 나설 수 있었다. 그 후 30년 가까이 올림픽 정신으로 세계 10위권 경제대국으로 성장했다. 그 빛을 갖고 싶다. 우리를 바라보는 많은 나라들에게 우리의 그런 소중한 경험을 나눠주고 싶다.' 그렇게 얘기하면 사람들은 관심을 갖고 들어주었지요. 진심이었습니다. 누가 뭐래도 번영을 구가하는 우리의 디딤돌은 올림픽이었습니다. 저는 우리 국민의 저력을 믿습니다. 정치가 흔들릴 때도, 경제가 휘청거릴 때도, 사회가 온통 먹구름으로 뒤덮였을 때도 분명히 일어나 새로운 역사를 만든 것은 항상 국민이었으니까요. 저는 이번에도 이러저러한 잡음은 있지만 결국에는 국민의 힘으로 성공적인 대회를 치러낼 것으로 믿습니다. 바라기는 그 과정에 정치가 더 이상의 불필요한 갈등과 상처를 만들지 말기를 바랄 뿐이지요.

배성민: 얘기가 무거워졌습니다. 잠깐 분위기 전환을 위해 2011년 유치당시로 돌아가 보실까요? 당시 1차 투표에서 압도적인 표차로 승리했었어요.

박선규: 예, 지금도 생생히 기억하고 있습니다. 독일의 뮌헨, 프랑스의 안시와 한국의 평창이 경합했는데 우리가 과반을 훌쩍 뛰어넘는 65표를 얻었지요. 기대 이상의 득표였습니다. 차크 로게 IOC 위원장이 무대에 올라 '평창'하고 발표하는 순간 더반의 컨벤션센터는 박수와 환호가 터지는 흥분의 도가니였습니다. 한데 저는 오히려 정신이 멍해지더군요. '아, 이제 됐구나!' 하는 안도의 마음뿐이었습니다. 차관이 된 후 최우선적으로 추진해왔던 과제를 완성했다는 안도감! 사실 더반으로 떠나며 저는 '유치에 실패하면 차관직을 내려놓겠다'는 약

속을 기자들에게 했었습니다. ‘옷 안 벗어도 되겠구나’ 하는 마음도 조금은 있었을까요? (웃음)
 그날 프레젠테이션에 나선 주자들 모두가 잘 해줬지만 저는 마지막 주자인 토비 도슨을 칭찬해주고 싶어요. 그의 발표 때 저는 승리를 예감했습니다. 그야말로 잘 짜여진 스토리에 감동을 더하는 화룡점정이었죠. 그의 발표에 처음엔 약간 거만한 듯 뒤로 제껴졌던 위원들의 자세가 어느 순간 턱을 괴거나 두 손을 모은 공손한(?) 자세로 바뀌었고 일부 위원들은 물 컵을 연신 입으로 가져가고 있었습니다. 빠져들고 있다는 증거였지요. 지금 생각해도 정말 대단한 프레젠테이션이었습니다.

배성민: 그렇게 감동적인 프리젠테이션을 한 토비 도슨은 차관님께서 발탁하셨다고 들었습니다.

박선규: 제가 발탁했다기보다는 발탁의 계기를 만들었다고 해야겠죠. 저한테 전적인 권한이 있었던 것은 아니니까요. 우리 크리스찬의 입장에서 보면 가장 적당한 시기에 하나님께서 보내주셨다고 할까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 기막힌 타이밍이었지요. 차관 시절 다큐멘터리 촬영을 위해 한국에 온 토비 도슨과 처음 만났는데 인상이 참 좋았습니다. 순박한 인상에 참 겸손했지요. 그 모습이 ‘감동 컨셉’을 구성하는 핵심요인으로 그를 고려하게 만든 겁니다. 입양아에서 동계올림픽 스타가 된 그의 개인 스토리가 그야말로 희망이고 감동이었던 거예요. 그런 마음을 정병국 장관과 컨설턴트 등에게 전했고 내부 논의를 거쳐 그를 발탁하게 된 것이지요.

배성민: 가수 인순이씨도 그런 결정에 영향을 미쳤다고요?

박선규: 그렇습니다. 제 인터뷰를 마친 후 토비 도슨을 포함한 제작팀을 필동 한국의 집으로 불렀습니다. 멋지게 저녁을 대접하고 싶었어요. 어려운 환경을 딛고 성공 인생을 살고 있는 토비 도슨을 격려하기 위해서였죠. 한편으로는 그들과 함께한 친구의 면을 세워주기 위한 목적도 있었고요. 한데 토비 도슨 옆에 누군가를 앉혀주고 싶은 거예요. 그때 생각난 게 인순이였습니다. 뭔가 둘이 잘 통할 것 같았어요. 특별한 일이 없으면 함께 해 달라고 청하자 인순이는 기꺼이 시간을 내 주었지요. 그날 토비 도슨의 옆자리에 앉은 인순이가 그에게 이런 말을 하는 거예요. “나는 미국인처럼 생겨서 한국 사람으로 사느라고 힘들었는데 너는 한국인처럼 생겨서 미국 사람으로 사느라고 참 힘들었겠구나 애!” 예기치 않았던 얘기에 껄껄 웃어줬지만 마음 속엔 쿵하는 울림이 있었어요. 지금은 성공한 입장에서 웃고 있지만 그 한마디에 두 사람의 힘겨웠던, 어찌면 처절했던 과거사가 다 녹아 있었음을 알기 때문이었죠. “아, 그래. 저 얘기. 토비 도슨의 감동적인 스토리가 충분히 통할 수 있겠구나. 다른 종목이 아닌 모굴 스키의 메달리스트이기에 그의 존재 자체가 동계올림픽의 희망이 될 수 있겠구나!” 결국 저는 그날 그 자리에서 토비 도슨을 세워야겠다고 마음을 정했습니다.

배성민: 토비 도슨만 얘기하시면 다른 분들이 서운해 할 것 같은데요?

박선규: 맞습니다. 어찌 토비 도슨 한 사람이 이런 결과이겠습니까? 조양호 위원장과 박용성 대한체육회장 포함해 다 역사를 이룬 분들이지요. 특히 김연아의 인기와 활약은 대단했습니다. 당시에 보니 김연아는 IOC 위원들 사이에서 아이돌 스타였



어요. 그 대단한 분들이 서로 사진 찍으려고 청하고 얘기하고 싶어 접근하고... 이견희 회장도 대단했지요. 한 표라도 더 얻어야 했기에 지나 우리 측의 유치위원들이 IOC 위원들을 만나는데 열심이었습니다. 한데 그때마다 우리는 ‘을’이었습니다. 아쉬운 소리를 많이 해야 했지요. 때론 선물도 줘야 했고요. 그런데 어느 날 IOC 위원들이 묵고 있는 호텔에 이견희 회장이 나타났어요. 그러자 그 호텔에 묵고 있는 모든 IOC 위원들이 로비에 거의 도열하다시피 하는 겁니다. 눈도장이라도 찍기 위해서요. 거기서 저는 삼성의 힘을 봤지요. 이견희 회장의 아우리가 그렇게 강하다 보니 위원들 가운데서는 “이 회장의 사위인 김재열 빙상연맹회장과의 식사를 했다느니, 골프를 쳤다”느니 하고 저에게 자랑하는 사람들도 있었지요. 적지 않은 사람들이 2010년 12월 31일 이견희 회장을 특별 사면한 것을 두고 재벌 특혜라고 비판을 했습니다마는 저는 동의하지 않습니다. 평창유치를 성공시키기 위해서 꼭 필요했던 이명박 대통령의 승부수였다고 할

수 있지요. 거기에 총회 닷새 전 더반에 도착해 5일 동안 20여명의 부동표로 분류된 IOC 위원 20여명을 은밀하게 만나 맞춤형 대화로 지원을 당부한 대통령의 현지 지원활동도 빼 놓을 수 없는 성공요인이라고 할 수 있을 겁니다.

배성민: 그런 사람들의 활동 외에 IOC 위원들 사이에서는 ‘드라이브 더 드림’이라는 프로그램에 대한 평가가 높았다고 들었습니다. 그 프로그램을 통해 ‘대한민국은 약속을 잘 지키는 나라’라는 평이 많았고 결과적으로 득표에도 도움이 됐다고요.

박선규: 맞습니다. ‘드라이브 더 드림’이라는 프로그램이 있었지요. 2004년 첫 번째 도전을 하면서 평창은 IOC에 약속을 합니다. “평생 눈 구경하기 어려운 나라의 청소년들을 초청해 스키와 스케이트 등 종목을 체험하게 하고 그를 통해 올림픽 정신의 전파에 앞장 서겠다”는 것이었습니다. 이 약속을 평창은 계속 지켜온 것이지요. 심지어 떨어진 이후에도 말이지요. 그런 평창의 모습에 적지 않

은 IOC 위원들이 감동을 받은 것입니다. “아니, 평창은 떨어져서도 약속을 지키는구나...” 통계를 보니까 2004년부터 지난해까지 83개국에서 1,919명의 청소년들이 이 프로그램에 참여한 것으로 나타나 있었습니다. 장애인들도 164명이나 됐고요, 그들 가운데 179명은 자기 나라의 선수가 됐다는 통계도 있더군요. 얼마 전에 기사를 봤는데요, 말레이시아 최초로 동계올림픽 피겨에 출전하는 줄리안이 선수와 루마니아 대표로 쇼트트랙에 출전하는 에밀 임레라는 선수는 ‘드라이브 더 드림’ 출신이라더군요. 기분이 정말 좋았습니다.

배성민: 유치가 확정 된 후 이광재 전 지사에게 전화를 하셨다고요?

박선규: 예, 그렇습니다. 여러 사람들의 얼굴이 떠오르더라고요. 1차 2차 때 열심히 뛰었던 사람들, 그들 가운데 조용히 잊혀져간 사람들... 그런 얼굴들 가운데 이광재 전 지사가 있었지요. 유치 실무위원장의 책임을 맡고 기록을 살펴보니 참 노력을 많이 했다는 사실을 알 수 있었습니다. “우리는 지금 이렇게 좋은데 지금 그는 어떤 마음으로 이 상황을 지켜보고 있을까?” 기쁘면서도 한편으로는 가슴이 많이 아릴 것 같았습니다. 그래서 전화를 했지요. 하지만 통화가 이뤄지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문자를 남겼습니다. “감사합니다. 흘러주신 땀이 있었기에 오늘 성공을 이룰 수 있었습니다. 올림픽의 성공과 함께 지사님의 노력도 굵게 기록될 것입니다.” 대략 이런 내용이었던 것으로 기억합니다. 이 지사 외에 이창동, 유인촌 전 장관 등 몇 명과도 통화를 하거나 문자를 남겼습니다. 당연한 일이었죠. 이 시점에 다시 한번 분명하게 짚을 것이 있습니다. 평창올림픽은 2011년 결정 당시 이

명박 정부와 유치위원회 관계자들의 노력만으로 유치된 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유치활동을 본격적으로 시작한 2004년 이후 좌파정부와 우파정부가 대를 이어가며 힘을 더했고 그 기간 동안 수많은 사람들의 노력과 땀이 차곡차곡 쌓인 결과라는 것입니다. 2011년 유치위는 그런 바탕위에서 성공을 이뤄낸 것이지요. 어떻게 생각해보면 유치성공의 기쁨을 맛본 저를 포함해 정병국 장관이나 최문순 지사 등은 운이 좋았던 것이지요. 그래서 저 요즘 ‘올림픽은 우리가 유치했는데 생색은 엉뚱한 사람들이 다 낸다’는 식의 얘기를 하는 사람들을 별로 좋아하지 않습니다.

배성민: 아, 강원도 크리스찬들 사이에 2010년 있었던 평창유치를 위한 핫불집회에서 차관님이 했던 얘기를 기억하는 분들이 적지 않더라고요.

박선규: 아, 그런가요? 저도 생생하게 기억합니다. 차관으로 임명된 지 한 달도 안 된 시점이었죠. 2010년 8월로 기억됩니다. 강릉빙상경기장에서 열린 ‘올림픽 유치를 위한 핫불 기도회’에 김장환 목사님의 초청을 받아 갔습니다. 열기가 대단하더군요. 대부분 ‘이번에는 반드시 유치에 성공해야 한다’, ‘힘을 모으자’라며 분위기를 띄우는데 어떤 분이 지난 두 차례의 실패를 얘기하며 ‘평창은, 강원도는 그 두 번의 실패 후 정부로부터 철저히 버림받았다.’고 목소리를 높이더군요. 그러면서 ‘이제 고속철도 계획도 취소되고 개발 계획도 취소되고... 힘든 시절이 올 것이다’라는 식으로 정부에 대한 서운함을 표하며 청중들을 선동하고 있더군요. 마침 그 분 뒤로 제가 연단에 서게 됐습니다. “여러분, 아닙니다. 그 두 번의 실패에도 불구하고 정부는 강원도를, 여러분들을 버리지 않았습니다.

그것을 확인시켜드리기 위해 제가 오늘 여기에 왔습니다. 지난 두 번은 여러분들이 중심이 돼 고군분투하셨지만 이번에는 정부가 중심에 서겠습니다. 이제까지 보여주셨던 노력만 더해주시면 반드시 제가 앞장서서 성공을 이끌어 내겠습니다!” 미리 준비한 얘기는 아니었는데 자연스럽게 그렇게 얘기가 흘렀습니다. 그날 저는 정말로 많은 박수를 받았지요.

배성민: 이번엔 차관님 개인 얘기를 좀 해볼까요? 방송 앵커 출신이시지요? 이번 인터뷰를 준비하면서 보니 은근히 팬들이 많으시더라고요.

박선규: 그런가요? 감사한 얘가지요. 고려대학교를 졸업한 뒤 1987년 KBS에 기자로 입사해 20년 3개월 일했습니다. 그 동안 뉴스 앵커 외에 ‘사건 25시’, ‘일요진단’ 등 여러 프로그램들을 진행했지요. 그리고 걸프전과 소말리아 내전, 유고 내전 등을 5차례 중군기자로 일했지요. 아마도 대한민국 기자 가운데서는 전쟁 취재를 가장 많이 했을 겁니다. 전쟁이 얼마나 위험한지, 지도자가 얼마나 중요한지, 정치가 얼마나 중요한지... 뼈저리게 체험했지요. 전쟁터를 경험하며 제가 얻은 나름의 결론이 있습니다. ‘지도자가 실패하면 국가가 불행해지고 국가가 불행해지면 국민은 비참해진다’는 것이지요. 그리고 전쟁을 겪는 나라들은 예외없이 정치가 실패한 나라였지요. 운 좋게도 2002년에는 미국 연방의회 하원의원인 에드워드 로이스의 보좌관으로 1년 동안 일하기도 했습니다. 세계정치의 중심이라는 미국에서 미국 정치를 관찰하고 한 발 떨어져서 우리를 살필 수 있는 귀한 기회였지요. 그러나 미국산 쇠고기 파동 직후에 방송전문가로 발탁돼 청와대에서 일했고 그후 문화체육관

광부 차관을 지냈습니다. 그런 이유로 평창동계올림픽 유치 실무책임자도 된 것이지요. 하다 보니 방송에 자주 모습을 드러내는 역할을 많이 했는데 그것이 많은 사람들에게 익숙해지는 계기가 된 것 같습니다.

배성민: 전쟁터를 그렇게 많이 다니셨다니 놀랍습니다. 겁나지 않으셨나요?

박선규: 겁이 안 났다면 거짓말이겠지요. 하지만 기자라면 한번쯤 중군을 해봐야 한다고 생각했지요, 저는 신앙인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필요해서 기자로 만들어 주셨으니 안전하게 지켜주실 것이라는 믿음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가족의 입장은 조금 다를 수 있었겠지요. (웃음) 처음 걸프전에 자원할 때 결혼한 지 1년 3개월 됐었습니다. 큰 딸이 70여일, 기자 생활은 만 3년을 갓 넘긴 상태였지요. 어느 날 회사에서 중군취재 자원자 손들라는 말에 망설임없이 손을 들었는데 문제는 저 말고는 손 든 사람이 없었다는 겁니다. 당황스러웠지만 이미 발을 빼기는 늦었죠. 그렇다고 아내에게 전쟁터에 가게 됐다고 직설적으로 얘기할 수도 없었습니다. 그날 밤 집에 와서 걸프전 뉴스를 보며 ‘언제까지 저런 뉴스를 외신으로 받아야 하나? 우리도 누군가 보내야 할텐데 누가 걸릴지 참...’ 의도된 낚두리를 털어 놓았지요. 다음날도 같은 얘기를 반복했더니 와이프가 눈치를 채더군요. ‘왜, 걸프전에 나가세요?’ “아냐, 난 못가지. 저긴 고참들이 가는 건데...” 그렇게 좀 뜬금없이 속을 드러냈습니다. “한데 회사에서 가라고 하면 어떡하지?” “뭘 어떻게 해요. 사표 내야지!” 예상보다 훨씬 단호한 반응이었습니다. 이미 의도가 있었던 바라나도 한마디 했습니다. “실망이다. 내가 얼마나 기자생활을

행복하게 하고 있는데 사표 내라는 말을 그렇게 쉽게 하나? 그리고 나는 안 되고 나 말고 다른 사람은 가도 된다니... 왜 그렇게 사람을 비겁하게 만들어. 나, 너 그런 사람인줄 몰랐다!” 문을 쾅 닫고 나와 버렸지요. 그렇게 5일쯤 신경전이 전개됐지요. 결국 와이프가 수정제안을 하더군요. “좋다. 명령이라면 반대하지 않겠다. 그러나 절대 자원은 안 된다” “미쳤나? 내가 그런걸 자원하게...” 일은 그렇게 정리가 됐고 저는 40여일을 전쟁터를 누렸습니다. 비행기 타고 처음 나가본 외국이 전쟁터라니... 그 기간 동안 큰 딸의 100일이 있었지만 아빠가 전쟁터 가 있는데 잔치를 할 수는 없었겠지요. 그랬기에 돌 잔치를 조금 신경 써서 했는데 그때 문제가 터지고 말았습니다. KBS 후배 가운데 아내의 대학 후배가 집에 들어서면서 한마디 날린 겁니다. “아니 형수는 어떻게 했기에 형이 신혼살림에 전쟁터를 자원하게 만듭니까?” 눈치없는 그 후배의 그 한마디에 비밀은 탄로났고 손님들 보내고 나서는 전쟁이 벌어졌습니다. 와이프가 영영 울고... 난리도 아니었지요. 한데 그 뒤로도 4차례나 더 전쟁터에 나갔으니.... 지금 돌아보면 모든 것이 감사뿐입니다. 종군취재를 통해 시야가 넓어지고 기자로서의 생각도 바로 세울 수 있었으니까요.

배성민 : 신앙생활은 언제부터 시작하셨나요?

박선규: 모태신앙입니다. 감사하게도 어머니께서 결혼 전부터 신앙을 가지셨죠. 하지만 집안은 독실한 불교 집안이었는데 장남인 저의 홍역을 계기로 집안 전체가 예수님을 영접했다고 합니다. 홍역을 하던 제가 거의 죽어 희망이 없다는 판정이 났는데 어머니께서 목사님 기도 한번만 받도록 해달라고 할머니께 간청을 했답니다. 장손의 위기에 할

제가 확실하게 고백할 수 있는 것은
‘나의 나 된 것은 다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

‘어머니의 눈물의 기도’는
결코 땅에 그냥 떨어지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머니가 동의하지 않을 이유가 없었고 기도를 받은 후 저는 살아났다고 하고요. 그날 이후 저희 가족은 모두 독실한 크리스찬이 됐다는 것이지요. 그렇게 크리스찬이 되신 할머니는 평생 한글을 깨치지 못하셨는데 그럼에도 매번 예배시간에는 가장 먼저, 가장 앞자리에 앉아 예배를 드리신 신앙의 어른이셨습니다.

배성민 : 그렇다면 차관님께서서는 기독교 집안에서 가족의 기도 속에 평탄하게 자라오셨겠군요.


박선규: 그렇게 보이시나요? 신앙을 가졌다는 의미에서는 그렇게 말할 수 있겠지만 생활의 측면에서는 그렇게 평탄하지 못했습니다. 5살 때, 갑작스럽게 아버님이 돌아가셨지요. 당시 어머니는 31살이셨고 어머니께서는 저 말고도 6살, 3살, 100일의 어린 4남매가 남겨졌지요. 아버님은 마을에서 가장 일을 하다 갑작스럽게 돌아가셨는데 아버지가 돌아가시자 동네 사람들의 인심이 달라지더라고요. ‘나는 비료 외상 가져간 일 없다’ ‘당신 남편이 보증 했으니 갚아라..’ 달라는 대로 다 갚고 나니 구마 2가마가 남더라고요. 어머니는 그 밤 고향을 뜨셨지요. 무섭게 변해버린 사람들이 무서웠고 무

옛보다 어린 자식들을 교육시키기 위해서였다고 합니다. 그랬으니 31살 청상과부에 핏덩이 같은 4남매의 생활이 어떠했겠습니까? 비참했겠지요. 제가 고등학교 다닐 때까지 우리는 생활보호대상자였습니다. 정부에서 나눠주는 밀가루를 통해 생계를 해결해야 하는. 그런 상황에서도 다행인 것은 우리 가족 모두 신앙을 놓지 않았다는 것이지요. 어머니께서 정말 열심히 기도하셨습니다. 저는 지금도 우리를 위해 새벽에 눈물을 쏟으며 기도하던 어머니의 모습을 기억합니다. 지금의 저는 그런 어머니의 기도의 결과이지요. 많은 사람들은 지금의 제 모습 속에서 그런 과거를 상상조차 하지 못하지요. 사람들은 KBS 기자와 청와대 대변인, 문화부 차관 등의 타이틀만 보고 고생은 한 번도 안 하며 자랐을 것 같다고, 성공의 탄탄대로를 달려온 인생이 분명할 거라고 말하지요. 아닙니다. 무지 힘들었습니다. 다만 그 힘든 시절을 좌절하지 않고 기도로 이겨냈을 뿐입니다. 제가 확실하게 고백할 수 있는 것은 ‘나의 나 된 것은 다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 ‘어머니의 눈물의 기도’는 결코 땅에 그냥 떨어지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배성민 : 지금은 어떤 일을 하고 계신가요?

박선규: 2017년을 보내며 많은 것들을 정리했습니다. 가장 큰 것은 정치인의 옷을 벗은 것이지요. ‘하나님의 공의가 하수처럼 흐르는 세상’을 꿈꾸며 나름대로 최선을 다했는데... 하나님의 뜻이 아니었던 모양입니다. 가장 힘들었던 것은 목적달성을 위해 끊임없이 편 가르고 갈등을 부추기는 정치권 전반의 문화였습니다. 온갖 거짓과 모략, 선전 선동이 총동원됐지요. 정말 가슴 아팠던 것은 크리스찬들조차 그런 분위기에 영향 받아 찢기고 갈라지

는 모습을 보는 것이었습니다. 같은 신앙인들끼리 정치적 성향이 다르다는 단 하나의 이유로 손가락질하고 침 뱉는 모습도 많이 봤습니다. 솔직히 저도 신앙의 동지들 사이에서 상처를 많이 받았지요. 재미있는 것은 그런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 다른 신을 섬기는 사람들과는 잘 지내더라는 것이었습니다. 신앙보다 세상의 도가 더 강하다는 것이지... (웃음)

짧지 않은 기간 동안, 비교적 여러 일들을 경험하며 결국 사람을 기르는 것 말고는 답이 없다는 결론을 얻었습니다. 그래서 “더불어 꿈”이라는 사단 법인을 만들었지요. 가난해서, 형편이 어려워서 다양한 경험을 하지 못하는 아이들에게 ‘경험의 기회’를 제공하는 법인입니다. 특별히 문화와 봉사 체험을 통해서 저들의 꿈을 자극하고 키워주는 일을 하지요. 왜 문화냐고요? 문화는 벽을 허물고, 선입견을 깨고... 부정적인 것을 뛰어넘는 꿈을 갖게 하는 가장 좋은 수단이라고 믿기 때문입니다. 구체적으로는 세종문화회관이나 예술의 전당에서 뮤지컬, 발레, 오페라 등을 경험하도록 돕습니다. 캄보디아의 빈민촌에서 봉사활동 할 기회도 제공합니다. 세계 다른 나라 청소년들과 교류하고 교제할 수 있는 프로그램도 있습니다. 보람이 큼니다. 프로그램에 참여했던 아이들이 남긴 글들을 보면 정말 흐뭇해집니다. 이제 몸도 훌가분해졌으니 올해는 더 뛰어야지요. 1만 원짜리, 1만 개의 후원구좌를 만들어 더 많은 아이들에게 기회를 제공하는 것이 소박한 꿈입니다. 월드뷰와 독자들께서도 함께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

우리 아이들이
마음껏 꿈꾸고
그 꿈을 멋지게 펼쳐갈
내일을 꿈꿉니다,

”

협력기관

문화체육관광부, 사랑의열매, 한국예술종합학교, 예술의전당, 국립극장
명동예술극장, 국립오페라단, 국립발레단, 코리아심포니오케스트라
신씨컴퍼니, PMC, 서울시립유지재단, 세종문화회관, 우리걸의클래식
사)한국장애인문화협회, 사)한중학술문화교류협회, 사)밥퍼공동체
명보아트홀 드림캣, 하우스콘서트, 더뮤즈오페라, 다일공동체, 스테이지원
사)한국대학산악연맹, 사)휴먼인러브, 해피페이퍼, 세이셀관광청, 인오션M&C

사단법인 더불어 꿈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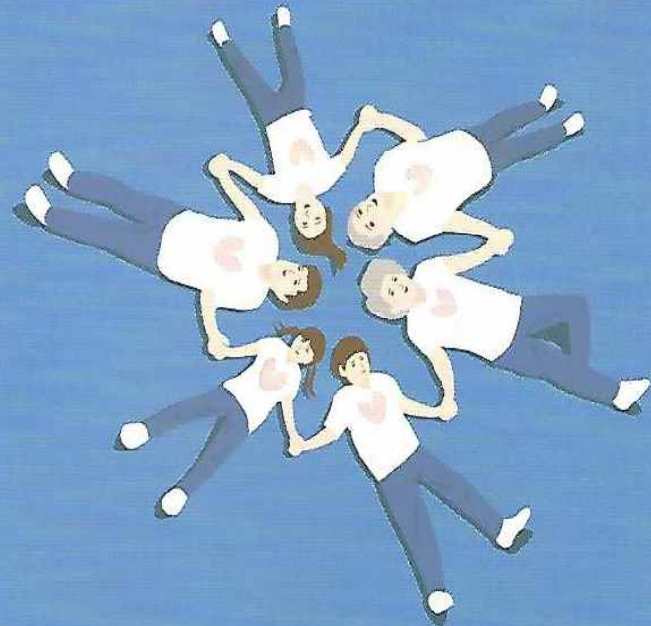
사업자등록번호 107-82-17206
법인등록번호 254121-0022284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선유로 88 윤당제1빌딩 301호
Tel 02.2632.4011 Fax 02.2635.6472

www.dreamtogether.or.kr



더불어 꿈

문화체험!
봉사체험!
국제 CAMP 체험!



네이버에서 **더불어 꿈** 을 검색하세요

사단법인 더불어 꿈 (문화체육관광부 허가 2013-39)